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다양한 층위(層位)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허경진**

|| 차례 ||

- I. 머리말
- II. 간접적인 서적교류
- III. 일방적인 직접 체험기 사행록
- IV. 예기치 못한 이국 체험기 표류기
- V. 쌍방의 기록인 필담과 한시 창화
- VI.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쌍방적 교류인 척독
- VII. 맺음말 - 다양한 층위의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안

【국문초록】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였고, 에도막부(江戸幕府)의 장군이 즉위할 때마다 축하사절인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했다. 통신사를 통해서 일본은 조선의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도 계속 받아들였다. 류큐(琉球) 왕국도 에도막부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동아시아의 동쪽 끝나라 일본과 류큐의 문화가 조선의 통신사를 통해서 중국 북경을 거쳐 서쪽 끝나라 베트남까지 이어졌다.

이 여러 나라의 언어(言語)는 각기 달랐지만, 한자(漢字)라는 공동문자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를 교류했다. 서적을 통한 간접교류로 시작하여 사행(使行)과 표류(漂流)

* 이 논문은 2014년 2월 17일 베트남 흥방국제대학교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와 한국의 문화교류」 국제학술대회의 기초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를 통한 직접교류, 필담과 책독을 통한 문학 교류에 이르기까지, 한자 기록을 통한 동아시아인들의 문화교류는 다섯 가지 층위로 이루어졌다. 이같이 복잡다단한 문화교류 양상을 언어와 문자가 다른 현대의 여러 나라 학자들이 공동 연구하려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한문 원문과 다양한 이미지를 서로 제공하고, 같은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제어 : 동아시아 문화교류, 한자, 사행록, 표류기, 필담, 조선

I. 머리말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면 베트남 호치민시까지 4시간 만에 도착한다. 항공사의 운항노선은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 문화교류의 길과 같다. 이 길을 통해서 베트남 하노이(河內)에서 중국 북경(北京)까지 사신이 파견되었고, 한국 서울(漢陽)에서 역시 북경(北京)까지 사신이 파견되었다. 한국(朝鮮)과 베트남(越南)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북경에서 만나 공동문자(共同文字)인 한자를 통해 필담(筆談)을 나누고, 한시(漢詩)를 주고받았다. 뜻하지 않게 표류당한 사람들의 체험 기록은 사신들이 보지 못하는 외국의 뒷모습까지도 전달해 주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였고, 에도막부(江戶幕府)의 장군이 즉위할 때마다 축하사절인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했다. 500명이나 되는 통신사 일행 가운데는 시인(詩人)·화원(畫員)·의원(醫員)·악공(樂工)·사자관(寫字官)·마상재(馬上才)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파견되어,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뤄졌다. 통신사를 통해서

일본은 조선의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도 계속 받아들였다. 류큐(琉球) 왕국도 에도막부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동아시아의 동쪽 끝나라 일본과 류큐의 문화가 조선의 통신사를 통해서 중국 북경을 거쳐 서쪽 끝나라 베트남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여러 나라의 언어(言語)는 각기 달랐지만, 한자(漢字)라는 공동문자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를 교류했다. 서적을 통한 간접교류로 시작하여 사행(使行)과 표류(漂流)를 통한 직접교류, 필담과 척독을 통한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한자 기록을 통한 동아시아인들의 문화교류를 다섯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보고, 이같이 복잡다단한 문화교류 양상을 언어와 문자가 다른 현대의 여러 나라 학자들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간접적인 서적교류(書籍交流)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漢字)는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조선(朝鮮)과 남월(南越)을 정복한 시기에 두 나라 지배층의 공식 문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나라는 남월(南越) 영토 일부에 B. C. 111에 한구군(漢九郡)을 설치하고, 조선 영토 일부 어디엔가 B. C. 108에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하였으니, 한국보다 베트남에서 몇 년 먼저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인의 한자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은 414년에 세워진 고구려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이고, 이 시기의 서적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광개토왕비 비문의 문장 구성을 보거나 백제가 541년에 양(梁)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모시박사(毛詩博士)와 열반강의(涅槃經義)를

청했다는¹⁾ 기록을 보면, 그 이전에 상당한 수준의 서적 수입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565년에는 진(陳)나라 사신 유사(劉思)와 승려 명관(明觀)이 신라에 불경(佛經) 2,700권을 가져올²⁾ 정도로 서적교류가 활발해졌다.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에는 4세기 말 5세기 초에 백제(百濟) 왕인(王仁) 박사(博士)가 일본에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중국 양(梁)나라 주흥사(周興嗣, 470-521)가 『천자문(千字文)』을 만든 것보다 앞선다. 따라서 백제에서는 주흥사의 『천자문』이 수입되기 전에, 다른 형태의 『천자문』을 출판했으며, 그 책을 일본에까지 전파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하던 전근대시기에는 다른 나라의 문인들이 직접 만나서 교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적 수출입을 통해서 문화를 교류했다. 서적교류가 활발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거제도의 시행이다. 한국에서 788년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시행되고³⁾ 958년에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과거제도가 시행되자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확립되었으며, 수많은 응시자들이 유교의 경전 및 제자백가(諸子百家), 두보(杜甫)·이백(李白) 등의 시문집(詩文集)을 공부하느라고 대량의 한문 서적이 고려에 수입되었다. 고려의 서적문화 수준이 높아지자 송(宋)나라의 철종(哲宗)은 중국 대륙에 이미 없어진 희귀본을 구하기 위해 1091년 고려에 도움을 요청⁴⁾하

1) (聖王)十九年, 王遣使入梁, … 請毛詩博士·涅槃等經義. - 『三國史記』卷四, 『新羅本紀』第四.

2) (眞興王)二十六年春, … 陳遣使劉思與僧明觀來聘, 送釋氏經論千七百餘卷. - 『三國史記』卷四, 『新羅本紀』第四.

3) (元聖王)四年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 若禮記, 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第十.

4) 丙午, 李資義等還自宋奏云, 帝聞我國書籍多好本, 命館伴書所求書目錄, 授之乃曰, 雖有卷第不足者, 亦雖傳寫附來. - 『高麗史』卷十 宣宗 八年.

였으며, 고려의 문학 수준이 높아진 것을 걱정한 소식(蘇軾)은 1093년에 철중에게 “고려에 서적을 수출하지 말자”고 상소하였다.⁵⁾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서양문화를 받아들인 19세기 후반에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험으로 관원을 선발했지만, 베트남에서는 1919년까지 과거제도로 관원을 선발하여 가장 늦게까지 한문서적(漢文書籍)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나라들이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한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나라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이용하였다. 한국에서는 향찰(鄕札), 이두(吏讀), 구결(口訣), 언해(諺解)의 방법을 사용하고, 일본에서는 가나(假名)과 카에리텐(返り), 쿤도쿠(訓讀), 오키리가나(送假名)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베트남에서는 쯤놈(字喃, 喃字)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어 중국과는 다른 문자로 서적을 만들었다.

동아시아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국경이 높아져, 중국은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의 숫자를 점점 줄였다. 한국을 예로 든다면 신라시대(新羅時代)에 가장 활발해 820년부터 906년까지 당(唐)나라 유학생 가운데 58명이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고, 907년부터 오대(五代) 말까지 32명이 급제했다. 고려시대에는 송(宋)나라 빈공과에 최한(崔罕)·왕림(王琳)·김성적(金成績) 등이 합격하고, 원(元)나라 제과에 합격한 사람은 안진(安震)·최해(崔灑)·안축(安軸)·조렴(趙廉)·이곡(李穀)·이색(李穡) 등이 있었다. 명(明)나라의 과거에 김도(金濤)가 합격했지만, 명나라가 외국인인 상대로 한 과거를 폐지함으로써 더 이상의 유학생은 없었다. 심지어는 중국어(中國語) 회화(會話)까지도 중국에 유학가거나 조선에서 중국인 강사를 초청하여 배운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조선인에게 서적을 가지고 배웠으니, 쇠국주의가 심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서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청(淸)나라는 일본과 공식적인 외교를 맺지 않았지만, 민간(民間) 차원

5) 『論高麗買書利害劄子 三首』, 『東坡續集』 卷十三.

의 무역은 계속 유지하였다. 청나라 남경(南京) 상선 원순호(元順號)가 1779년 11월 5일에 일본 나가사키(長崎)를 향해 출발했는데, 대풍을 만나 일본 치쿠라(千倉) 바닷가에 표착(漂着)하였다. 분고(豊後) 히지번(日出藩)에 관원으로 있던 소라이학파(徂徠學派) 학자 이토 란텐(伊東藍田, 1734-1809)이 1780년 5월 23일에 수용소를 찾아가 선장(船長) 심경침(沈敬瞻)과 필담(筆談)을 시도하였다. 원순호에 실려 있던 화물 가운데 상당 수가 서적이었다.

당시 사에키번(佐伯藩)에는 장서(藏書)가 8만 권에 달하는 사이키문고(佐伯文庫)가 있었다. 학문을 좋아했던 사이키번의 제8대 번주(藩主) 모리 다카스에(毛利高標, 1755-1801)는 재임 기간에 많은 서적을 수집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이키문고의 구장서(舊藏書) 중에는 심경침을 통하여 입수한 서적이 49점이나 확인되었는데, 모리 번주가 심경침에게 주문하였고, 심경침의 무역선을 통해 나가사키에서 다시 사이키번으로 전해졌다. 이 장서들은 지금까지도 일본 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⁶⁾

모리 번주의 장서 중에 조선으로부터 입수한, 원나라에서 1267년에 만든 『어약원방(御藥院方)』이 있었는데, 1798년 겨울에 센가요시히사(千賀芳久)에 의해 250부 인쇄되었고, 그 중 몇 부가 심경침에게 선물로 보내졌다. 1798년 센가요시히사(千賀芳久)에서 출판한 『어약원방(御藥院方)』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1983년에 중국 중의고적출판사(中醫古籍出版社)에서 영인본을 출판하였는데, 이 저본은 심경침이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⁷⁾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 의약서가 조선에 전해졌고, 또

6) 大庭修, 『漂着船物語-江戸時代日中交流』, 岩波新書, 2001, pp.84-86.

7) (沈敬瞻)從1777(安永六年)到1803(享和三年), 一直沒有間斷來航. 天明二年他以高价售出舶來的書籍, 其中有的在以後流入紅葉山文庫, 成爲善本書籍. 寬政四年他還將元佚書亥刻本《御藥院方》舶來日本. (大庭修(1997)《江戸時代日中秘話》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중국에 입수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서적 유통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⁸⁾

Ⅲ. 일방적인 직접 체험기 사행록(使行錄)

사행(使行)은 왕이 파견하는 공식 사절단이기 때문에, 귀국하면 당연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왕에게 제출했다. 왕은 공식적인 보고서를 읽어야 했지만, 연행사(燕行使)같이 1년에 서너 차례 파견하는 사행의 다양한 보고서를 모두 다 읽어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삼사(三使)가 귀국하여 복명하면 궁금한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물어보았다. 11차 통신사 조엄(趙巖)이 1764년 7월 8일 경복궁에서 영조(英祖)에게 복명하자, 영조가 사헌합(思賢閣)에서 이들을 만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한 뒤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을 물어보았다. 영조는 삼사 뿐만 아니라 제술관·서기·군관들에게까지 각자 임무에 어울리는 질문을 하며 관심을 쏟았다.

사신(使臣)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갈 수 없던 시대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사행(使行)에 참여했던 인원들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다양한 독자들을 상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見聞] 이야기들을 기록해 전달하였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남성 지식인이었기에 당연히 한자로 기록하였지만, 어머니나 아내에게 외국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국문(國文)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⁹⁾

第十章).

8) 허경진·최영화, 『청나라 무역선의 일본 표류와 『유방필어(遊房筆語)』』, 『아시아문화연구』 제26집, 2012.

9) 3대 연행록으로 불리는 김창업의 『노가제연행일기』,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이계호의 『연행록』, 강호부의 『상봉록』, 이계호의 『연행록』,

통신사(通信使) 경우에는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이 각자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른 배에 탔으므로, 같은 노정(路程)을 다녀오면서 조금씩 다른 체험을 기록하였다. 정사는 아무나 만날 수 없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으므로, 아무런 직책 없이 자유롭게 수행했던 자제군관(子弟軍官)과는 견문이나 체험이 달랐다.

연행록이나 통신사 사행록 가운데 상당수가 노정에 따라 비슷한 기록을 남긴 것에 비해, 외국 구경을 하기 위해 자원한 자제군관들의 견문기는 남다른 이야기가 많다. 3대 연행록이라 불리는 김창업의 『노가재연행록(老稼齋燕行錄)』(1712), 홍대용의 『담헌연기(湛軒燕記)』(1765),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1780)가 모두 자제군관의 기록이고, 통신사 사행록 경우에는 홍경해의 『수사일록(隨使日錄)』(1748)이 자제군관의 기록이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 사신들이 한양까지 올라왔지만, 사신들의 상경로(上京路)를 따라 임진왜란 때에 왜군들이 북상했으므로, 17세기부터는 일본 사신들이 한양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동래(東萊) 왜관(倭館)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따라서 일본 승려 덴케이[天荊]가 1577년 10월에 일본 호고[兵庫]를 출발해 1579년 7월 동래(東萊)에 체류할 때까지의 평화시기에 기록한 견문기 『도해잡고(渡海雜稿)』와 임진왜란(1592) 때에 제1군 소속으로 참전하여 기록한 중군일기인 『서정일기(西征日記)』를 비교하면 일본인의 조선 인식을 다른 층위(層位)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 사신이 조선에 다녀와서 기록한 사행록은 17종이 『사조선록(使朝鮮錄)』이라는 제목으로 편집 출판되었으며,¹⁰⁾ 류큐(琉球)에 파견된 명나라와 청나라 책봉사들도 삼백여년 동안 15종의 견문기를 기록하였다. 류큐는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에게 공물(貢物)을 바치는 진공선(進貢船)을 2년에

서유문의 『무오연행록』 등 18세기 연행록에 국문본이 많다.

10) 殷夢霞, 于浩, 『使朝鮮錄』,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1회 정도 보냈는데, 1척에 100여명 규모로 2척 내지 4척을 보냈다. 중국의 책봉사는 500여명 규모였는데, 명(明)·청(淸)의 실록과 채온(蔡溫)의 『중산세보(中山世譜)』를 바탕으로 정리한 책봉사 사행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의 류큐 책봉사 사행록 목록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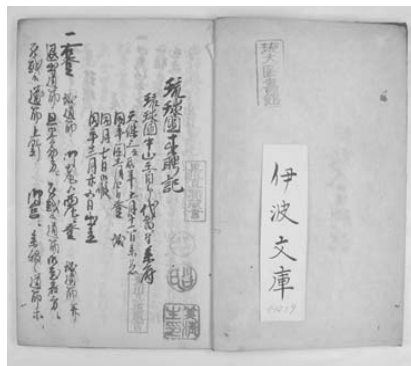
代	派遣者	請封者	實錄紀年	世譜紀年	正·副使	冊封使錄
明	世宗	尙淸	1532	1534	吏科左給事中 陳侃 行人 高澄	陳侃, 『使琉球錄』
	世宗	尙元	1558	1561	吏科左給事中 郭汝霖 行人 李際春	郭汝霖/李際春, 『重編使琉球錄』
	神宗	尙永	1576	1579	戶科左給事中 蕭崇業 行人 謝杰	蕭崇業/謝杰, 『使琉球錄』
	神宗	尙寧	1602	1606	兵科右給事中 夏子陽	夏子陽, 『使琉球錄』
	莊烈帝	尙豐	1629	1633	戶科右給事中 杜三策 行人 司正 楊掄	胡璜, 『琉球圖記』
淸	世祖 /聖祖	尙質	1654	1663	兵科副理官 張學禮 行人 王垓	張學禮, 『使琉球記』, 『中山紀略』
	聖祖	尙貞	1682	1683	翰林院檢討 汪楫 內閣中書舍人 林麟焄	汪楫, 『冊封疏鈔』 『中山沿革志』, 『使琉球雜錄』
	聖祖	尙敬	1718	1719	翰林院檢討 海寶 翰林院編修 徐葆光	徐葆光, 『中山傳信錄』
	高宗	尙穆	1755	1756	翰林院侍講 全魁 翰林院編修 周煌	周煌, 『琉球國志略』
	仁宗	尙溫	1799	1800	翰林院修撰 趙文楷 內閣中書 李鼎元	李鼎元, 『使琉球記』
	仁宗	尙灑	1807	1808	翰林院編修 齊鯤 工科給事中 費錫章	齊鯤/費錫章, 『續琉球國志略』
	宣宗	尙育	1837	1838	翰林院修撰 林鴻年 翰林院編修 高人鑑	
	穆宗	尙泰	1865	1866	詹事府左春坊贊善 趙新 翰林院編修 于光甲	趙新, 『續琉球國志略』

11) 原田禹雄, 尖閣諸島, 榕樹書林, 2006, pp.8-9.

일본의 사츠마번[薩摩藩]이 1609년에 류큐를 침공하여 일본에 복속시킨 뒤에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책봉사가 형식적으로 류큐에 파견되어 조공 외교를 계속했으나, 사츠마번 복속 전후의 책봉사 사행록을 나누어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류큐에서는 “江戸上り”라 불리는 류큐사절(琉球使節)을 에도막부로 파견했는데, 장군습직(將軍襲職)을 축하하는 경하사(慶賀使)와 류큐국왕(琉球國王)이 즉위한 후 보내는 사은사(謝恩使)가 1634년 이래 18차례 파견되었다. 이들도 일지를 기록했지만, 그들에게 이미 일본은 이국(異國)이 아니어서, 타자(他者)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유구국내빙기(琉球國來聘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일지(日誌)에 지나지 않아, 문화 교류 연구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림 1〉 『유구국내빙기(琉球國來聘記)』



사행 도중에는 여정이 바쁘다보니 일기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초서로 썼다가, 귀국한 뒤에 다른 자료들을 참조하여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사행록은 정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언진(李彦璘)이 1764년 통신사행 때에 교토와 오사카에서 기록한 6일치 일기가 따로 돌아다닌다든가,¹²⁾ 박지원의 친

필본 『열하일기』 초본이 여러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그런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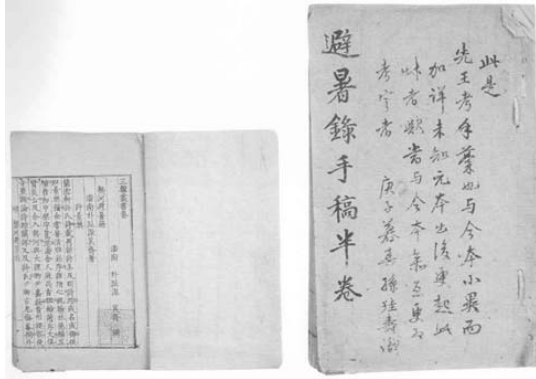
〈그림 2〉 이언진의 6일치 일기



사행록을 연구할 때에 주의할 점은 귀국한 뒤에 혼자서 초고를 정리하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외국인과 대담을 했더라도, 사실 그대로 기록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박규수가 박지원의 수고본(手稿本) 『열하일기』의 한 부분을 찾아내어 다른 본과 대조한 결과, “이것은 선왕고(先王考)의 수고(手稿)인데, 지금 가지고 있던 본과 조금 다르고 더욱 자세해서, 어느 것이 원본인지 알 수가 없다[此是先王考手稿也. 与今本小異, 而加詳, 未知元本也.]”고 하였다. 박지원의 친필본이 발견될 때마다 대조해보면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손자 박규수도 끝내 정본을 만들지 못하였다.

12) 강순애·심경호·허경진·구지현, 『우상잉복 - 천제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에 원문 사진과 번역이 실려 있다.

〈그림 3〉 박규수가 찾아낸 박지원의 수고본 『열하일기』, 『피서록』 (淵民先生 舊藏本)



대부분의 연행록은 그 자체로 출판된 경우가 거의 없어서 본인 내지 필사자에 의해 몇 차례 필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분량이 고쳐졌으니, 연행록이나 통신사 사행록을 연구할 때에는 일방적인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IV. 예기치 못한 이국 체험기 표류기(漂流記)

사신들만이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볼 수 있었던 지역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한국과 중국을 예로 든다면 한양에서 북경까지 가는 길만 오고 갔으며, 다른 지역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배를 타고 항해하던 어민(漁民)이나 상인(商人), 관원(官員)들이 태풍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지역에 표착(漂着)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귀국한 뒤에 관청에 표류 사실을 신고하여 공식적인 신문기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¹³⁾ 자신들의 기이한 체험을 글로 기록하여 여러 사람들

에게 알리기도 했다.

표류인에게는 국경이 없기에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표착했는데, 조선의 지식인 가운데 외부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일부 지식인들이 표류기를 통해 확보한 해외정보를 체계화하였다. 최영화는 실록(實錄)같이 공적인 기록에 실린 표류기 외에 20여 종의 표류기를 수집하여 목록을 만들고¹⁴⁾ 표류인의 외국 견문기를 가공하여 정제된 지식의 형태로 발전시킨 이익태의 『지영록(知瀛錄)』(1696), 송정규의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1706)과 정운경의 『탐라문견록耽羅聞見錄』(1732) 등을 분석하여 ‘지식체계의 새로운 글 쓰기’라고 평가하였다.

‘찬집사’의 출현은 해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조선후기의 지성사적 흐름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표류를 통한 해외정보의 지식화는 이 시기 지식인들의 역동성의 산물이면서도, 당시 이미 경계가 확장하기 시작한 지식체계에 새롭게 편입된 항목에 대한 주목을 글쓰기로 구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해외 지식’이라는 항목이 당대의 지식 체계에 편입된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지향하는 지식의 범주가 자국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컨대, 세 텍스트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전시대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선구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18세기 지식의 滿開’을 준비하였다.¹⁵⁾

표류인들이 이같이 방대한 분량의 새로운 지식과 견문을 국내 지식인들

13) 동래에 살던 무인(武人) 이지향이 1696년 봄에 일본 북해도(北海島)에 표착했다가 송전번(松前藩) 관원들에게 공술한 기록 『漂流朝鮮人李先達呈辭』이 일본 북해도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귀국한 뒤 동래 관아에 가서 공술한 기록인 『표주록(漂舟錄)』이 『해행총재(海行摠載)』에 실려 있어, 두 기록을 비교해볼 수 있다. 허경진, 『표류민 이지향과 아이누인, 일본인 사이의 의사소통』, 『冽上古典研究』32집, 2010.

14) 최영화, 『18세기 전기 표류를 통한 해외 정보의 유입과 지식화-漂流記事 纂輯書を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pp.11-12.

15) 같은 글, p.89.

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꺾어야 했던 과정에 언어와 문자의 충돌이 일어났다.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 류큐, 베트남 등의 어느 나라와도 언어가 달랐으므로 표류인과 현지인 사이에는 당연히 언어적인 충돌이 일어났는데, 중국에서는 곧바로 필담(筆談)으로 소통되었으며, 일본이나 류큐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표착지에서 관청으로 옮겨져 역관(譯官)을 만나 통역을 통해 의사가 소통되었다. 그러나 한자마저 통하지 않는 지역에 표착한 표류인들은 더욱 새로운 체험을 하였다.

동래에 살던 무인 이지항(李志恒)이 1696년 봄에 일본 북해도(北海島)에 표류했다가 1697년 봄에 부산으로 돌아와, 『표주록(漂舟錄)』을 기록하였다. 자발적인 기행문이 아니라, 3월 5일 부산포에 돌아왔다가, “다음날 아침 관아로 들어가 공술을 들인” 것이다. 일행 8명 가운데 왜관(倭館) 주변에 살았던 김백선은 일본어를 좀 알았으며, 비장 공철과 김여방도 문자를 좀 알았다. 일본인과의 의사소통은 이지항과 김백선이 주로 담당했는데, 그들의 지위가 일행 가운데 높으니까 문자를 알아서 일본인들이 이들을 상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한자는 물론이고, 일본어를 아는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이들이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 밖에 표착한 것이다.

이지항의 학력은 분명치 않지만, 그가 표류 당시에 『서한연의평(西漢演議評)』·『의학정전(醫學正傳)』·『제약초방(諸藥抄方)』·『주후방(肘後方)』·『약성가(藥性歌)』·『시집(詩集)』 등 서책과 조선력(朝鮮曆), 그리고 벼루를 소지하고 있었다¹⁶⁾고 하니, 의학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듯하다. 여행길에 벼루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보면, 평소에도 자주 글을 쓴 듯하다. 기억을 더듬어 공술한 『표주록』의 문장이라든가, 일본인들과 주고

16) 이러한 도서목록은 『표주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당시 북해도 관원이 보고한 문서에 보인다. 남미혜, 『표주록을 통해 본 이지항(1647-?)의 일본 인식』, 『梨花史學研究』 제33집, 2006, p.101 재인용.

받은 한시도 무인 치고는 상당한 독서력과 문장력을 입증한다.¹⁷⁾

이지항의 표류와 관련된 자료는 두 가지이다. 이 가운데 조선측 기록인 『표주록(漂舟錄)』은 『해행총재(海行摠載)』에 편집되면서 학계에 알려졌지만, 일본측 기록인 『표류조선인이선달정사(漂流朝鮮人李先達呈辭)』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표류조선인이선달정사(漂流朝鮮人李先達呈辭)』는 아이누 지역에서 그를 발견한 일본 관원이 송전번(松前藩)으로 호송한 뒤, 관청에서 공술한 기록이다. 『표주록』은 이지항 일행이 귀국한 뒤에 부산포 관아에 가서 공술한 기록이다. 표류하게 된 경위와 귀국한 경로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일본인과의 한시 창화는 거의 빠져 있다.

『표주록』은 귀국한 뒤 부산진 첨사에게 공술한 기록이다. 그는 일본에 표류했던 당시에 그곳 관청에서 같은 형식으로 공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공술 시기가 다르고 시점이 달랐기에, 기록 형태도 다르고, 내용도 일부 다르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감출 수도 있고, 기억력이 흐려져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류기가 두 나라에 함께 전할 때에는 반드시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일본 지도를 본 적이 있고 통신사 수행원으로부터 일본의 지리에 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으므로, “동해 바다가 다하는 곳까지 가면 반드시 일본 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일본에 도착하는 것을 요행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통신사가 다니며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이기에 귀환할 방법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5월 12일쯤 도착한 곳은 일본이 아니었다. 며칠 만에 사람을 만났지만, 기대하던 일본인이 아니었다. 김백선의 일본어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와 통신사 수행원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일본이 아니라 미지의 땅에 도착했다고 깨달은 순간, 이들

17) 허경진, 위의 논문, p.58.

은 살해당할까봐 놀라고 떨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묵묵히 바라만 보다가, 배가 고프다 다시 접촉하였다.¹⁸⁾

글자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아, 이들과는 몸짓으로 의사를 소통했다. “입과 배를 가리키며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시늉을 시험삼아 해보였고(指口腹而試說飢渴之狀), “그릇을 내보이며 쌀을 달라고 청해 보았지만 대답할 줄 몰랐다(出示行器, 請得升米之語, 而不知所答).” “머리를 흔들고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掉頭不答)” “그들이 정말로 쌀이나 콩을 모르는 자들(厥類正不知米太者)”임을 깨달았다. 상륙 이틀째인데다 마을을 발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기에 여러 가지로 의사를 소통해보려 했지만, 이들이 알아낸 것은 지명 뿐이었다. 이곳이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모곡(諸毛谷)’, ‘지곡(至谷)’, ‘소유아(小有我)’라는 곳의 지도상 위치는 알 수 없었다. 문명권 밖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지나며 서로 적의(敵意)가 없음이 확인되자, 이들은 물물교환을 시작하였다.¹⁹⁾

이들은 아이누인들과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이지향 일행이 돌아가는 뱃길을 묻자, 그들은 “면전에 같이 서서 손으로 남쪽을 가리키고 입으로 바람을 내는 모양을 지으면서 ‘마즈마이……’라 말하였다 [以手共立面前而向南, 口吹風形, 指曰마즈마이云云.]” 이지향은 처음으로 아이누의 언어를 기록했는데,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기록했다.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글자로 기록했으니, 아이누가 이지향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지만 이지향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마즈마이’는 아이누지역 남쪽 끝, 일본의 행정과 문명이 미치지 지역 송전(松前)의 일본어 발음이다. 김백선이 일본어를 조금 알았지만, 아이누가 일본 글자를 모르고 소리만 알았기에 의사가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18) 같은 글, pp.60-61.

19) 같은 글, pp.62-63.

이들은 남쪽으로 4일을 더 가다가 드디어 일본어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 아이누를 벗어나 일본어 지역으로 들어선 것이다. 일본인을 만나자, 일본어를 조금 아는 김백선을 통해 의사가 소통되기 시작하였다. 며칠 뒤에 만난 왜인이 봉한 편지를 전해 주기에 뜯어보니, “모두 일본 언해(諺解)여서 그 사연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 글월의 밑에 다만 한자(漢字)로 ‘송전인 신곡십랑병위(松前人新谷十郎兵衛)’라고 씌어져 있었다. 마음속이 조금 기뻐져, 마치 꿈을 꾸다가 놀란 듯하였다.”²⁰⁾ 일본 언해(諺解), 즉 히라가나는 읽을 수 없었지만, 이들을 찾고 있는 ‘송전인 신곡십랑병위(松前人新谷十郎兵衛)’의 이름을 한자로 보는 순간 “마음속이 조금 기뻐져, 마치 꿈을 꾸다가 놀란 듯” 하였다. 한자문화권에 들어섰으니, 이제부터는 필담(筆談)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이다.

김백선이 일본어로 나라 이름을 물었지만 일본인들에게 잘 통하지 않아, 필담을 통해 “하이국(蝦夷國)”임을 알았다. 명치 2년(1869)에야 일본 영역으로 들어와 북해도라고 개칭한 곳이다. 통신사 일행의 필담은 한자로 쓴 필담이지만, 김백선의 필담은 일본 글자로 쓴 필담이다. 이 지역에는 한자로 필담할 만한 지식인이 없었다. 일본어 지역에 들어왔지만, 주민들이 대부분 한자를 모르다보니 이지항 일행에게는 아이누 지역이나 다름없었다.

김백선의 일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일본글자로 필담을 시도한 다음 날, 이지항이 드디어 한자로 필담을 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필담은 7월 23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관원에게 공술하는 형태였다. 7월 27일 송전(松前) 태수를 만나 본격적인 필담과 서신 왕래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필담과 서찰이 오갔지만 표류에 관한 질문일 뿐, 조선의 제도나 성리학, 문학, 의학같은 전문지식에 관한 질문은 없었다. 통신사 일행이 거쳐간

20) 又傳封書垢見, 皆日本諺解, 未知辭意, 書下只眞書, 松前人新谷十郎兵衛, 心中少快, 有若夢驚.

지역의 필담같이 상업적으로 출판될 성격은 아니었다.

이지항은 7월 1일 처음으로 한시를 지었다. 일본인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 필담이나 서찰이 정보 전달이라면, 한시는 감정의 전달이다. 가장 먼저 이지항에게 한시 창화(唱和)를 요청한 사람은 송전번(松前藩) 태수였다. 7월 27일 송전 관청에서 공식적인 필담을 주고받았으며, 28일에는 공술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 그 다음날 태수가 선물을 보냈다. 이지항에게 종이를 특히 많이 선물한 까닭은 그의 지위가 높기 때문이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며칠 뒤에 태수가 한시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이 마주앉아 창화(唱和)하지 않고 태수가 먼저 이지항에게 시를 요구한 다음에 차운하여 보내왔는데, 이는 태수의 한시 창작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자리에서 창화하려면 상당히 빠르게 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무인인 이지항 경우에도 즉석의 차운시는 힘들었을 것이다.

표류인 이지항이 도착하자 두 나라 관청에서 모두 공술을 들었다. 공술은 개인적인 기행문과 달리 공식적인 보고인데, 관청의 질문은 처음 한 차례이고, 그 다음부터는 공술자의 일방적인 보고가 이어진다. 주고받는 대화체가 아니다. 물론 중간에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만 썼을 가능성도 있다. 『표주록』에서 이지항이 조선에 돌아와 공술하는 과정을 보면 당시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절차가 보여진다.

비로소 순풍을 만나 우리나라 부산포(釜山浦)에 도착했다. 왜관(倭館)의 금도왜(禁徒倭) 등이 날이 어두워 검사할 수 없으므로, 날이 새기를 기다려 검사를 받은 뒤에야 나왔다. 우리는 가지고 온 짐을 같이 표류했던 울산 도포(桃浦) 사람 박두산(朴斗山)의 배에 옮겨 실었다. 부산진의 영가대(永嘉臺) 앞에 정박하여 배에서 내렸다. 부산침사가 표류했던 사람들의 배가 닿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를 불러 공술(供述)을 들이라 했다.²¹⁾

그는 무인이었지만 한문에 익숙했기에 두 나라의 공식적인 심문 절차를 한문으로 답변할 수 있었으며, 이 기록은 두 나라 관청에서 접수 처리되었다. 그가 한문에 익숙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에서는 아이누어와 조선어에 익숙한 일본 역관이 중간에 끼어들어야 했으며, 조선에서도 부산진 아전이 이지항의 조선어 공술을 한문으로 번역해 기록했어야 했다. 그가 직접 한문으로 썼기에 그의 표류과정과 귀환과정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었다.

이지항 일행은 공식적인 역관이 없었지만, 동래에서 일본어를 주워들은 김백선을 통해 초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러나 김백선의 일본어보다는 이지항의 한시가 더 환대를 받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이누 지역에서 표류와 만남이 시작되었기에 이들은 손짓 발짓에서 일본어, 히라가나 필담, 한자필담, 한시 창작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을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체험하였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결국 한시가 가장 고급 단계의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통신사가 이백년이나 에도막부에 파견되었지만 이들이 한양에서 에도[江戶, 지금의 도쿄]까지 다녀오는 길은 늘 정해져 있었으며, 일광산(日光山)을 세 차례 방문한 것 외에는 다른 지역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지항 일행은 일본 에도막부의 통치가 미치지 못했던 북해도에 표착하는 바람에 한자는 물론이고 일본어조차 못하는 아이누인들을 만났으며, 마츠마에[松前]를 거쳐 나가사키[長崎]를 통해 부산 왜관으로 돌아오는 낯선 체험을 했다. 일방적인 기록인 사행록과는 달리, 마츠마에[松前]와 동래부 양쪽에 공술기록을 남겨, 표류기가 쌍방적인 견문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1) 始得順風出來我國釜浦, 倭館禁徒倭等, 暮不得搜檢. 待明搜檢後出送, 移載路卜於同漂蔚山桃浦人朴斗山之船, 來泊釜鎮永嘉臺前下船, 釜山僉使聞泊漂. 招致納供, … 翌朝入官納供.

V. 쌍방의 기록인 필담(筆談)과 한시(漢詩) 창화(唱和)

사행록과 표류기가 외국에 가서 보고들은 이야기들을 귀국한 뒤에 일방적으로, 또는 현지 관원과 마주앉아 쌍방적으로 기록한 글이라면, 필담(筆談)과 한시(漢詩) 창화(唱和)는 외국 현장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마주앉아 의사를 소통한 글이다. 일방적(一方的)인 기록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과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필담과 한시(漢詩) 창화(唱和)는 쌍방적(雙方的)인 기록이어서 타자인식(他者認識)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 경우에는 곧바로 출판되어서, 통신사 행렬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지역의 독자들에게까지 파급 효과가 많았다.

쓰시마와 후쿠오카 사이에 있는 섬 아이노시마[藍島, 相島]는 12차 사행이 모두 거쳤던 곳인데, 사행원 500여 명과 일본 측 호송인 2,000여 명이 이 작은 섬에 도착하면 숙소가 모자라 그때마다 새로 숙소를 세웠다. 사행원들이 이 섬에서 풍량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후쿠오카 일대의 여러 분야 지식인들이 섬 안의 숙소에까지 찾아와 필담(筆談)을 주고받거나 한시를 창화했으니, 교토[京都]나 오사카[大阪], 에도[江戸, 지금의 도쿄] 같은 대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찾아와 필담과 한시 창화가 이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임진왜란 이후에 공식적인 외교가 단절되었으므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조선 지식인과의 필담을 통해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이와 같은 지식은 곧바로 교토나 오사카, 에도의 출판사에 출판되어 널리 전파되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미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수집, 번역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2008-2011) 프로젝트를 통해서 필담창화집 178종을 정리해 200자원고지 45,000매의 번역문과 이미지 데이터 17,800면을 확보했으며, 『통신사기록 조사, 번역 및 목록화 연구용역』(2013)을 통

해서 필담창화집 50종의 이미지 데이터 4,000면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성과는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연구총서 1-6』(보고사, 2012)와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 1-10』(보고사, 2013)이 이미 출판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다.

조선 사행원의 숙소에 일본 지식인들이 찾아와 필담과 한시 창화를 나눈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 지식인들을 찾아가 필담을 청하였다. 조선은 병자호란(1636)에 후금(後金)에 항복하고도 청나라를 오랫동안 중화(中華)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필담이나 한시 창화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홍대용(1765), 박지원(1780)의 연행(燕行) 때부터 북학(北學)의 방법으로 필담을 시작하였는데, 일본의 경우처럼 출판되지는 않았다. 문화는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었으므로, 중국에서 조선의 지식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일본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이다.

VI.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쌍방적 교류인 척독(尺牘)

필담과 한시(漢詩) 창화(唱和)가 쌍방적인 문화교류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지닌데 비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척독(尺牘, 편지) 교류는 쌍방적이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가장 자유로운 문화교류 형태이다. 척독을 보내는 인편에 서적이거나 다양한 물품까지도 선물(贈物)로 보낼 수 있어, 구체적인 교류 성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주고받은 척독을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연구 자료로 가장 먼저 활용한 학자는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교수로 와 있던 후지츠카 지카시[藤塚隣]인데, 자신의 서재 이름을 표기한 원고지에 원찰(原札)들을 옮겨 썼으며, 이따금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림 4〉 후지츠카 지카시의 원고지에 필사한 『연항시독(燕杭詩讀)』
(하버드대학 연칭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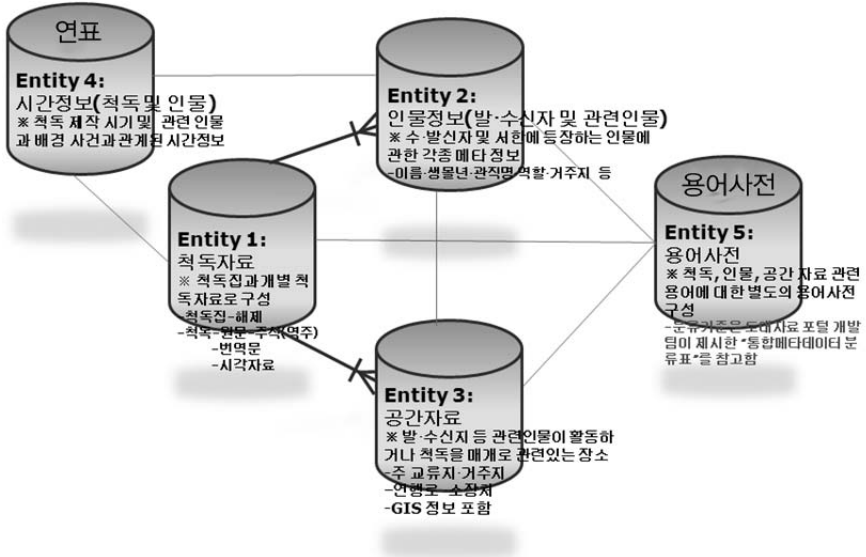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들의 문화교류가 홍대용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원찰(原札)로 따진다면 김재행의 『중조학사서한(中朝學士書翰)』이 첫 번째 척독집이다. 조선과 청나라 문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척독집은 현재 40여종 수집되었으며, 가장 마지막 자료인 김창희(金昌熙)의 『석릉수간(石菱受柬)』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2013년 12월에 개최되었다.²²⁾

척독은 수신자(受信者)와 발신자(發信者)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수적이다. 조선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진 척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2) 『石菱受柬과 壬午軍亂』 학술대회가 洙上古典硏究會 주최로 2013년 12월 27일에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 5편이 『洙上古典硏究』39집(2014년 3월)에 기획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그림 5〉 척독의 엔티티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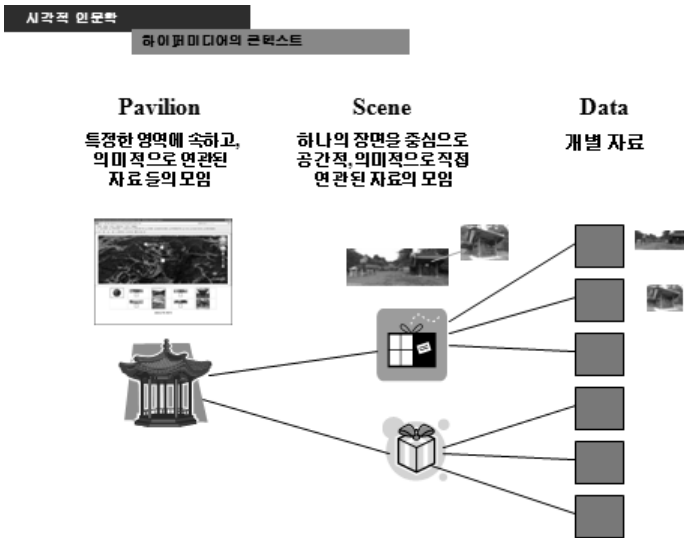


척독은 한 장만 가지고 문맥을 파악하기 힘들고,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여러 편의 척독을 함께 연구해야만 이해하기가 쉽다. 위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척독 한 편을 연구할 때에도 척독자료(척독 원문, 번역문, 해제, 사진), 인물정보(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생몰년, 관직명, 역할, 거주지), 공간자료(발신자와 수신자가 활동하던 장소, 만난 장소, GIS 정보), 시간정보(발신시기, 수신시기, 관련인물이나 배경사건과 관련된 시간정보), 용어사전 등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다른 발신자, 수신자들의 척독까지 잇달아 검색할 수 있다. 원찰 사진이나 번역문만 보여주던 종이책과는 달리, 가장 효과적인 척독 연구방법이다.

VII. 맺음말 - 다양한 층위의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안

한자문화권의 문화교류는 언어가 다른 나라 사이에 몇 백 년에 걸쳐 서적, 사행록, 표류기, 필담, 한시(漢詩) 창화(唱和), 척독(尺牘)이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뤄졌으므로, 지금까지의 종이책 연구방법만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개별 자료들을 하나의 장면 중심으로, 의미적으로 연관된 자료들을 모아 놓고 그 공간 속에 연구자들이 함께 들어가 공동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층위의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으면 언어가 다른 외국 학자들도 각기 자기 나라의 연구실에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웹 공간에 들어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림 6〉 시각적 인문학 - 하이퍼미디어의 콘텍스트²³⁾



23) 김현, 『디지털시대, 인문지식의 새로운 형식』, 2013년 6월 12일 자문회의 자료.

필자는 현재 서적에서 과거(科擧), 사행록, 표류기, 필담, 한시(漢詩) 창화(唱和), 척독(尺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았다. 한문으로 된 원전을 사진 찍어 이미지데이터로 만들고, 원문을 입력한 다음,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 학자도 다양한 검색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언어와 문자가 다른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같은 공간(空間)에 들어와 공동으로 연구하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金富軾, 『三國史記』.

李志恒, 『漂舟錄』.

蘇軾, 『東坡續集』.

鄭麟趾, 『高麗史』.

大庭修, 『漂着船物語-江戸時代日中交流』, 岩波新書, 2001.

原田禹雄, 尖閣諸島, 榕樹書林, 2006.

殷夢霞, 于浩, 『使朝鮮錄』,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2. 논문 및 단행본

강순애 · 심경호 · 허경진 · 구지현, 『우상잉복 -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 문화사, 2008.

김 현, 「디지털시대, 인문지식의 새로운 형식」, 2013년 6월 12일 연세대학교 문화콘텐츠 자문회의 자료.

남미혜, 「표주록을 통해 본 이지항(1647-?)의 일본 인식」, 『梨花史學研究』제33집, 2006.

최영화, 「18세기 전기 표류를 통한 해외 정보의 유입과 지식화-漂流記事 纂輯書を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허경진, 「표류민 이지항과 아이누인, 일본인 사이의 의사소통」, 『洌上古典研究』32집, 2010.

허경진 · 최영화, 「청나라 무역선의 일본 표류와 『유방필어(遊房筆語)』」, 『아시아문화연구』제26집, 2012.

Abstract

The Various Shapes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Database

Hur, Kyoung-Jin

One of the most dominating characteristics among Eastern Asian countries is that they used Chinese characters for centuries. This shared feature allowed them to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 and enabled the brisk cultural exchange concerning study-abroad and books. In the Ming Dynasty, only the envoys(使臣) and the drifted(漂流人) could experience life in foreign country due to the block of the free traffic imposed by foreigners. In order to convey what they have experienced overseas to the nation and neighbors, they recorded the full particulars in the form of a journal of envoy(使行錄) or a document of drift(漂流記).

While the envoys shuttled between the capitals of the two countries following the designated path, the drifted unintentionally experienced the very isolated region even without a interpreter(譯官). As a result, the documents of drift hold up a true mirror to the region which a journal of envoy cannot present. As the drifted gave general description(供述) of their documents to both civil servants in the land they reached and Chosun,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accuracy of the documents by comparing these two records.

Compared with the journal of the envoy that was written unilaterally after they returned, the record of the conversation by writing(筆談) secures more reliability in the fact that it was recorded bilaterally, both by a foreign traveler and a local. The documents of the conversation by writing conducted in China by Korean were compiled as the part of the travelogue of Hong Dae-Yong(洪大容) and Park Ji-won(朴趾源) and failed to become widely known in China. On the contrary, the records of the conversation of writing carried out in Japan were promptly published by Japanese publisher and were widely read. More

than two hundred kinds of collection of these records of conversation by writing are prominent in that they are the bilateral record of intellectuals from both Korea and Japan.

While this document of conversation by writing can be summarized as a record of meeting each other in fixed time and place, the letter(尺牘) is a record of cultural exchange undeterred by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Owing to this feature, the letter even broadens the horizon of cultural interchange. In order to conduct overall research on the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carried out in various levels as mentioned above, it is fundamental to build the database of visual materials.

The DB will allow world-wide scholars to feel free from language barriers to research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Key Word :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Chinese characters, journal of envoy, document of drift, conversation by writing, Chosun.

허경진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210호

전화번호 : 02-2123-2267

전자우편 : hur@yonsei.ac.kr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